



Photo | 이은경 집사(사랑-39)

매일묵상
2022. 4월호

발행인 | 조재호

집필/편집 | 교역자실

진행 | 신앙운동팀

고척교회 |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79
Tel. 02.2686.5871
www.gocheok.or.kr



2022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주제 성구

[신명기 16: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마가복음 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월 그라티아 갤러리



[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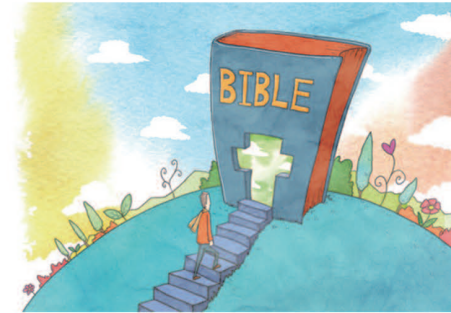
이 양 숙 작가

개인전 3회, 국내 정기전 및 자유전 다수 전시
현) 한국미협-양천미협-자유전(회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시회를 열게 해주신 고척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저 또한 21년은 최근 들어 가장 힘든 해였기도 합니다. 엄마와 오빠를 봄과 늦가을에 소풍을 보내드렸습니다. 가시는 길에 얼굴도 뵈지 못한 것이 참 힘든 시기였지만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나의 친구이자 동반자로 언제까지라도 함께 할 것입니다.

* 4월 카페 '그라티아'에는 이양숙 작가의 그림을 전시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매일 성경
매일 찬송
매일 기도
매일 감사

이름

소속
(교구-목장/부서)

목차

기도를 배우다	03
4·5월 달력	04
4월 [오늘의 말씀]	06
매일묵상을 위한 드라마바이블 활용	07
부활의 의미	08
매일묵상, '위드유'가정예배	14, 28, 44, 58, 74
열왕기하 해설	34
빌립보서 해설	70
이 달의 신앙도서 『래디컬북』	76
나의 매일묵상 이야기 윤경미 집사(은혜-33)	78
화상을 통한 목장모임의 감사와 은혜 김선오 집사(기쁨-19)	83
매일묵상을 통한 은혜 김창권 청년공동체	85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디아코니아(3) 차량부	87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믿음성장-바이블아카데미	89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몽골' 정홍재, 박선주 파송선교사	90
교회소식	93

예배안내

부록

- 나아만이 나왔어요
- 가정예배 암송구절 카드

그라티아 갤러리 | 이양숙 작가의 [그리움]

기도를
배우다

주님의 은혜

주 우리 하나님,
저희를 높이기 위해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저희를 부하게 하기 위해 주님은 가난해지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가게 하기 위해 주님은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저희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주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값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모두 우리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전파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당신께로 끌어올리지 않으시면 저희는 무력합니다.
하오니 저희에게 성령으로 당신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빛을 비추소서.

김영봉 엮음, [사림의 기도를 위한 기도 선집], IVP 2004, 564.



칼바르트(Karl Barth)
(1886-1968, 신학자)

스위스의 개혁 교회목사이자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으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였다. 자신이 속한 개혁교회 신학의 뿌리인 장 칼뱅, 율리히 초빙글리의 종교 개혁 사상 및 제2 스위스 신앙고백 등의 교의를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

하게 여기는 신학인 신정통주의 신학으로 기독교 사상의 열매를 맺게 하였다.

4

2022

부활의 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22)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월삭새벽기도회	2
3 • 회당의 복지재단 헌신예배	4	5 • 청명	6 • 한식	7	8	9
10 • 종려주일 • 상반기 세례입교식	11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11-16)	12	13	14 • 세족목요일 성찬예배	15 • 3.15	16
17 • 부활절	18	19	20 • 곡우	21 • 믿음성장 바이블아카데미 개강	22	23
24 • 이단대응세미나	25	26	27	28	29	30

TO DO LIST

☐	☐
☐	☐
☐	☐
☐	☐
☐	☐
☐	☐

5

2022

가정의 달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시 118:15)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어린이주일 • 유아세례식	2 • 월삭새벽기도회	3	4	5 • 어린이날 • 압하	6	7
8 • 아버지주일 • 21차 교회학교 해피데이	9	10	11	12	13	14 • 영대디캠프2기 (4주) 개강
15 • 교사주일11-16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16	17	18	19	20	21 • 소만
22	23	24 • 5060하프타임 (4주) 개강	25	26	27	28
29 • 청년주일 • 성년축복식 및 청년공동체 헌신예배	30	31				

TO DO LIST

☐	☐
☐	☐
☐	☐
☐	☐
☐	☐
☐	☐

4월 [오늘의 말씀]

1일	열왕기상 7장	16일	열왕기하 7-8장
2일	열왕기상 8장	17일	부활주일
3일	주일	18일	열왕기하 9장
4일	열왕기상 9-10장	19일	열왕기하 10장
5일	열왕기상 11장	20일	열왕기하 11-12장
6일	열왕기상 12-13장	21일	열왕기하 13-14장
7일	열왕기상 14-15장	22일	열왕기하 15-16장
8일	열왕기상 16-17장	23일	열왕기하 17장
9일	열왕기상 18-19장	24일	주일
10일	종려주일	25일	열왕기하 18장
11일	열왕기상 20장	26일	열왕기하 19-20장
12일	열왕기상 21-22장	27일	열왕기하 21-22장
13일	열왕기하 1-2장	28일	열왕기하 23장
14일	열왕기하 3-4장	29일	열왕기하 24-25장
15일	열왕기하 5-6장	30일	빌립보서 1-2장

매일묵상을 위한

드라마바이블 활용

1. '드라마바이블'이란?

드라마바이블은 오디오상황으로 100여 명의 다양한 명연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상급 연예인과 국내 최고 작가들이 참여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위인수 장로, 다윗과 보세는 이재룡과 장광 배우를 비롯하여 권오중(요엘), 방준보(이사아), 임지원(메스다·롯),

메지원(바브라), 우호진(하와), 만지은(바라아), 조우영(바라아) 등 그리스도 배우들도 재능을 기부했습니다. 또, 배우 윤우진과 안나우진, 조우영, CCM 가수 송정미 등이 시편을 낭독하는 등 총 100여 명의 그리스도 상우, 배우가 기쁘게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배경음악도 최고 오케스트라의 연주의 드라마 영화음악 감독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함을 오디오로 짐할 수 있습니다.



2. 드라마바이블 활용법

'드라마바이블'을 활용하면 성경하고 두장자 있게 성경일쑈를 읽을 수 있습니다. [고척교회 홈페이지]와 [고척교회 앱]에서 [매일묵상-드라마바이블]을 클릭하면, ① 매일묵상 읽기본문에 따라서 드라마바이블을 들을 수 있고, ② 2022년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읽기표와 '드라마바이블'을 편상해 놓았습니다.

고척교회 홈페이지 > www.gochek.or.kr

고척교회 앱 다운로드 >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 (Google Play)에서 '고척교회'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여 실행

부활의 의미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고전 15:20, 23)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세계 어느 종교도 부활을 중심으로 삼는 종교는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은 일시적 소생과 대비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소생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소생시킨 수넴 여인의 아들이나, 예수께서 소생시킨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비록 죽음에서 소생은 되었지만 다시 죽어 무덤에 묻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소생하여 얼마의 시간을 더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에서 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죄 문제 해결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은 죄에 대한 일시적 해결을 위한 것이지, 영구적 해결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대신 지불하신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그의 부활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영원한 생명의 위대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심이 우리가 지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입니다(롬 4:25). 여기에서 '의롭게 하기 위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δικαιοσύνης', 올바르게 하고 선언하는 사법적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체데크' 역시 사법적으로 올바르게 최종 판결되었음을 뜻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죄값으로 발효된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난 것입니다(롬 6:11).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고전 15:20, 23).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또 다른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 땅에서도, 우리들은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거듭난 중생의 삶을 살고 있을 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 생명의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종말의 때에 우리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생명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들을 의로운 길로 이끌어가는 삶의 실제적 원동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종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소극적인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우리들에게로 다가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를 섭리하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참고자료: 권혁승 교수(서울신대 구약학) '부활의 의미'

교회의 의미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40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7장

오늘의 말씀 | 왕상 7장

9장에서 사울은 아버지 말에 순종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사환의 말을 듣고 사무엘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하나님은 전날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테니 기름 부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 가장 미약한 자라며 겸손을 보였고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10장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고 이를 확신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줍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 예언하며 새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증거들을 보여주셨지만, 사울은 왕을 뽑는 자리에서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모두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묵상할 본문 | 왕상 7:13-22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던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질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정성을 다하여 지은 성전에 머무르게 되신 것입니다. 왕국시대에서 성전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였고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의미가 지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공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예배할 수 있는 삶, 어디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현대사회에서 비기독교인들이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여가생활이 늘어나고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의 모습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의 기도

1.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따라 살며 삶 가운데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2.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주일 2부 찬양팀 되게 하소서.
3. 국가와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정책을 펼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를 돕게 하시고 국민은 이에 협조하여 상부상조하는 대한민국 만들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75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오늘의 말씀 | 왕상 8장

성전이 완성되고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왕과 온 백성이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14일간을 절기로 지키며 성전봉헌식을 마치게 됩니다.

묵상할 본문 | 왕상 8:62-66

광야시대에 이곳저곳을 돌던 언약궤가, 그리고 왕국시대에 들어서는 다윗 궁에 머물던 언약궤가 비로소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왕국시대에서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잘됨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였다는 것으로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안위와 가정보다 성전을 더욱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성전, 즉 교회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 마음에 흠족함과 기쁨함이 있습니까?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교회에 대해 서로 나누어 봅시다.

*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심에 감사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감사함과 은혜의 기도제목들을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항상 생각하고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며 살게 하소서.
2. 주일 3부 찬양팀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셔서 은혜로운 찬양을 올리게 하소서.
3. 개개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행동

찬 양
말 씬
나 누 기

찬송가 449장

누가복음 6장 6-11절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네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라는 말은 손이 마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고,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손을 펴려 했고, 그때 손이 펴져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으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머릿속으로 판단하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순종을 통해 생명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질 문

손 마른 사람이 즉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순종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기 도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고 따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가족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 되어 ‘가라사대’ 게임을 합니다. ‘가라사대’가 들어가면 그대로 순종해야 하고 ‘가라사대’를 하지 않았는데 하면 벌칙을 받게 됩니다.

암 송

누가복음 6장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4월 3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복된 소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82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9-10장

오늘의 말씀 | 왕상 9-10장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준행하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업적을 듣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여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며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후반부는 솔로몬의 부와 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왕상 10:1-10

솔로몬의 지혜는 실로 대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스바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왕이 찾아와 그 지혜와 명성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바 여왕은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였고, 솔로몬은 막힘없이 그 모든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에 스바 여왕은 감동하였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이 퍼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 가정에 복된 소식이 흘러넘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복된 소식들이 우리들의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소식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솔로몬의 지혜를 소식을 통해 듣게된 이방인이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복된 소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복된 소식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소식은 무엇이 있는지 기록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 삶의 복된 소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주일 오후 찬양팀의 사역 가운데 열정을 허락하시고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3.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90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오늘의 말씀 | 왕상 11장

10장까지 솔로몬의 영화로운 모습들이 기록되었다면 11장부터는 솔로몬의 타락과 쇠퇴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역사가 전개됩니다. 외교 정책의 일환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은 일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결국 이방 신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닷, 르손, 예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결국,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솔로몬은 그 수한을 다하여 죽게 됩니다.

묵상할 본문 | 왕상 11:9-13

솔로몬은 촉망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비교하여도 떨어지지 않을 만한 인물이었지만, 솔로몬은 끝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채 그들을 아내로 맞아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까지 자행하였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돌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찍이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입을 닫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걷고 있지는 않은지 늘 깨어있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멀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릴 수 있는 신앙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2. 수요일전 찬양팀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3.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영역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9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2-13장

오늘의 말씀 | 왕상 12-13장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의 폭정을 일삼는 강압 정치로 인해 이스라엘은 분열의 시작을 걷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고통을 무시하였고, 이에 열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 여로보암이 남은 열지파의 왕이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묵상할 본문 | 왕상 12:12-15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10지파 대표들에게 앞으로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도 더욱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할 것이고 전갈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는 강압정치를 택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엿볼 수 있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면 15절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때 그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강압 정치를 택한 르호보암의 결정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1.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수요일후 찬양팀의 교역자와 팀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올려 드리게 하소서.
3.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믿음과 축복의 현상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으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88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4-15장

오늘의 말씀 | 왕상 14-15장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변장한 채 선지자 아히야를 만났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아들이 죽을 것임을 선고 받게 됩니다. 말씀대로 아비야는 죽게 되고 여로보암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편 유다의 르호보암도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으며, 르호보암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아비얌이 왕위에 오르지만,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아비얌의 뒤를 이어 아들 아사가 왕 위에 올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서는 나답이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잇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모반하여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바아사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묵상할 본문 | 왕상 14:10-14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가문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망 같은 소식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발견됩니다. 아비야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여로보암의 가문에서 오직 묘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은 그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선한 뜻으로 섬겼고 그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아비야를 둘러싼 주위는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죄악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된 자세를 가졌던 아비야의 모습을 묵상해 봅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아비야는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고 여로보암의 가문 중 유일하게 묘실에 들어갑니다. 주위의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켜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 있는지 기록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놓지 않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소서.
2. 금요성령집회 찬양팀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3.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살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소서.

사르밧 이방 여인의 순종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00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6-17장

오늘의 말씀 | 왕상 16-17장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징벌하기 위해 바아사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반란으로 왕이 된 이스라엘 왕 바아사도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엘라, 시므리에 이어 오므리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제 3대 왕조인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고 첫 번째 왕으로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였지만, 종교적으로 암흑기를 초래한 시대였습니다. 아합 시기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기근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 기근을 피해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이방여인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습니다.

묵상할 본문 | 왕상 17:8-16

이스라엘의 가뭄을 예언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는 아주 가난하였고 한 번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는 자신에게 먼저 먹을 것을 달라 말합니다. 자신의 신세를 이야기한 과부는 엘리야의 요청에 담긴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하고 엘리야의 말에 따라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는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얻습니다. 빈 상자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여인이 순종합니다. 때때로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허무맹랑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사르밧 과부의 사정은 어떠했습니까? 떡을 구워 달라는 엘리야의 부탁에 사르밧 과부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함께 나눠봅시다.

*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소서
2. 행복사역부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주시고 모든 회원들이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소서.
3.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드는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마지막인 것처럼 보여도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43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8-19장

오늘의 말씀 | 왕상 18-19장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자 아합은 그 모든 책임을 선지자들에게 돌리며 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이는 가뭄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일에 있음을 알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엘리야는 광야로 도피하였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하사엘과 이스라엘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각각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로 세우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묵상할 본문 | 왕상 19:1-21

엘리야가 행한 일을 듣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엘리야는 두려워서 자기 사환을 데리고 도망칩니다. 광야에서 천사가 나타나 엘리야를 깨워 음식을 먹게 하고 엘리야는 사십 주야를 걸어 호렘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는 말씀과 그에게 할 일을 일러주시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칠천 명이 아직 있다는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처럼 여겨졌던 그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를 지키셨고 그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은 마지막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때에도 계속해서 동행하셨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멈추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마지막은 없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엘리야가 이세벨의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의 솔직한 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했는지 고백해봅시다.

* 마지막 같은 순간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내게 있습니까? 함께 나눠봅시다.

* 마지막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기록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2. 희망의 복지재단의 사역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소서.
3. 교회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향한 관심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게 하소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찬 양 말 씬 나누기

찬송가 301장

신명기 8장 1-10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때로는 주리게도 하고, 때로는 낮추시기도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선함과 성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를 야고보 사도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약1:17)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질 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 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이번 한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보고 함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암 송

신명기 8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4월 10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0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오늘의 말씀 | 왕상 20장

20장에서는 아람 왕 벤하닷과 이스라엘 왕 아합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예언자의 전쟁 신탁에 힘입어서 공격적이고 거만한 적인 아람을 거둬들여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게 보이던 아람과의 전쟁이 나중에는 악한 것으로 비춰집니다(35-43). 왜냐하면 아합 왕은 아람 왕 벤하닷과 거래할 것이 아니라 그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나님께 바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묵상할 본문 | 왕상 20:35-43

아람 왕 벤하닷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탐내며, 이스라엘 왕 아합을 협박합니다. 아합 왕은 여러 곳에서 지혜를 모으며, 이 전쟁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취한 아합 왕은 화친을 맺으려 다가온 아람 왕과 덜컥 조약을 맺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전쟁에서 얻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쳐야 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합 왕은 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하나님의 것을 네가 대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42).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의 마음의 상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하나님께서 위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후에 당신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도제목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위급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2. 희망의 복지 재단이 오직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3.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에든지 평안할 때에든지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20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1-22장

오늘의 말씀 | 왕상 21-22장

21장에서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라의 권리와 백성의 권리 사이에 있는 갈등에 대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아합 왕은 망설임 없이 백성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22장에서는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아람과의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묵상할 본문 | 왕상 21:1-10

아합 왕은 자신이 거울에 거처하는 곳 이스라엘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에게도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를 거절했고, 아합 왕은 이 거절 때문에 답답함이 극에 달합니다. 그의 아내 이방 여인 이세벨은 꾀를 내어, 나봇을 죽이고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의 소유는 명백하게 그 나봇의 권리였고, 그는 레위기 25장에 따라 자신의 토지를 영구히 팔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아합 왕은 하나님의 것도 존중하지 않았고, 자신의 백성의 권리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합 왕의 가문을 멸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21).

삶의 적용과 물음

* 당신은 어디까지 이웃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이유를 나누어 봅시다.

* 누군가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유와 권리가 침범 받을 때 받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L-12가 오직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권리를 온전히 세워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3.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그 땅의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1. 열왕기하의 저자와 배경

열왕기하는 열왕기상과 함께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거의 대부분의 성경과 마찬가지로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함락을 목격한 사람이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열왕기서의 기록자가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이거나 B.C. 550년경의 바벨론의 유대인 포로였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열왕기를 '선지자들'의 작품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열왕기서의 기록자라는 주장이 가장 유력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탈무드라는 초기 유대 전통이 예레미야가 열왕기를 기록했다고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2. 열왕기하의 주제와 목적

열왕기하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소개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가 그의 백성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약에 복종해야 하는 필요성과 불복종했을 때 따라오는 고통스러운 결과의 실례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열왕기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포로기의 공포를 깊게 생각하게 하면서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불복하고 백성들이 포로 신세가 됐는지에 대해 어렵듯이 제기되는 문제에 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하는 길을 제시해줍니다.

3. 내용과 구조

열왕기하에서는 분열왕국의 후반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열왕국의 시대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던 북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어서 남유다 왕국의 잔존기가 이어지고,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의 의해 멸망당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멸망당하는 이야기로 열왕기하는 마쳐지게 됩니다.

1부

분열왕국 후반기의 역사(1장-17장)

열왕기하에서는 열왕기상에서부터 이어져오는 왕들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즉 1부 분열왕국 후반기의 역사에서는 주전 9세기 중반부터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주전 722년까지의 이르는 유다 및 이스라엘 두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내부적 외부적인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다가 앗수르 왕국의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2부

남유다 왕국 잔존기의 역사(18-25장)

2부 남유다 왕국 잔존기의 역사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던 중에서도 히스기야는 예배개혁

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보다 반 앗수르 동맹을 의지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호와와 새롭게 언약을 맺고 철저한 종교개혁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요시

야도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게 맞섰다가 목숨을 잃게 되면서 요시야가 이끌었던 종교개혁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의 느브갓네살의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4.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 연대기

남 유다 (B.C. 931 ~ 586년, 345년)		북 이스라엘 (B.C. 931 ~ 722년, 209년)	
기간	왕	연도	왕
17	르호보암	B.C. 931년	여로보암
3	아비아(아비얌)	여로보암 18년	
41	아사	여로보암 20년	
		아사2년	나답
		아사3년	바아사
		아사26년	엘라
		아사27년	시므리
		아사31(27)년	오므리
		아사38년	아합
25	여호사밋 (여호람 공치)	아합4년	
		여호사밋17년	아하시야
		여호사밋18년	요람(여호람)
8	여호람	요람5년	
1	아하시야	요람12년	
6	아달랴(여)		예후
40	요아스	예후7년	
		요아스23년	여호아하스
		요아스 37년	요아스
29	아마사	요아스 2년	
		아마사 15년	여로보암 2세
52	아사랴	여로보암 27년	
		아사랴 38년	스가랴
		아사랴 39년	살룸
		아사랴 39년	므나헴
		아사랴 50년	브가히아
		아사랴 52년	베가
16	요담	베가 2년	
16	아하스	베가 17년	
		아하스 12년	호세아
29	히스기야	호세아 3년	
		B.C. 722년	앗수르에게 멸망
55	므낫세		
2	아몬		
31	요시야		
3달	여호아하스		
11	여호아김		
3달	여호아긴		
11	시드기야		
바벨론에게 멸망		B.C. 586년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 오늘의 찬송: 찬송가 184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2장

오늘의 말씀 | 왕하 1-2장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하시야 왕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사자를 보냅니다. 디셋 사람 엘리야는 그 사자의 길을 막아서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했기 때문에,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2장에서는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왕하 2:1-11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는 자신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고 병들게 되었던 위기의 상황에서 바알세불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오십명씩 군대를 보낼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려고 할 때의 그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마지막 자신에게 구할 것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의 자신에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엘리사 또한 엘리야처럼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당신이 현재 가장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투자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하나님을 사모하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모한 하나님을 깊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게 하소서.
2. M-12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님을 가장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소서.
3. 우리 지역사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잃은 자의 슬픔

-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71장
- *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3-4장

오늘의 말씀 | 왕하 3-4장

3장에는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에게 공물을 바치는 중이었는데,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공물 바치기를 그쳤기 때문에 생긴 전쟁이었습니다. 4장에서는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스승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들을 엘리사도 동일하게 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그가 이스라엘의 능력 있는 선지자임을 나타내줍니다.

묵상할 본문 | 왕하 4:25-37

엘리사가 엘리야와 동일하게 수많은 기적을 행할 때에 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세심하게 섬깁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엘리사는 아들이 없었던 수넴 여인에게 늙은 남편과 함께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부에게 귀한 아들이 생깁니다. 아들의 없던 자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로 인해 더 큰 슬픔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장성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슬픔에 잠긴 수넴 여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슬픔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감을 느꼈던 적은 언제입니까? 그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 우리는 어떻게 상실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위로를 성공했던 적과 실패했던 적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상실한 마음을 위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게 하소서.
2. 남선교회연합회가 교회 안에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3. 세계 열방 안에 상실한 마음을 가진 모든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 받고 위로를 얻게 하소서.

어떤 것이 에워싸더라도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57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5-6장

오늘의 말씀 | 왕하 5-6장

5장에서는 엘리사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려는 예물을 하나님께 명세하며 받지 않지만, 그것을 아까워했던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대가를 요구해서 부정당한 방법으로 예물을 받아냅니다. 그 결과 게하시는 나병을 얻게 됩니다. 6장에서는 요단 물에 잠겨버린 쇠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둘러싼 아람의 수많은 군사 앞에서도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담대한 모습을 엘리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묵상할 본문 | 왕하 6:13-19

엘리사는 나병이 온 몸에 퍼진 아람 장군 나아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어떤 예물 앞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사들 속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에 에워싸인 사마리아 성 안에 사람들은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에워싸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요즘 당신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괴롭힘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많은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어떤 상황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2. 여전도회연합회가 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게 하소서.
3.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오직 슬픈 자를 위로하며, 그들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우게 하소서.

나병환자들의 용기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58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7-8장

오늘의 말씀 | 왕하 7-8장

7장에서는 나병환자들이 죽을 각오를 가지고 아람 군대를 향하여 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상태였고, 오히려 사마리아에 있는 것보다 아람군대에 가는 것이 생존확률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의해서 진영에서 도망하게 된 줄 알게 되었습니다. 8장에서는 수벰 여인이 자신의 집과 전토를 되찾는 이야기와 유다의 여호람 왕과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왕하 7:3-16

이스라엘은 현재 아람의 군대에 에워싸여서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백성 모두가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랬는데,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조차 없었던 나병환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마음으로 아람 군대를 향하여 용기를 내어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두렵게 하셔서 진영에서 급히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나병환자들은 기뻐하며 그 곳에 있는 음식들로 배를 채우고 재물을 취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임을 깨닫고, 다시 용기를 내어 이스라엘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들의 용기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당신이 가장 용기 있게 행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용기를 북돋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우연치 않게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왜 그들을 떠올리게 되었는데도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이 세상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감사위원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교척교회 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게 하소서.
3. 세계 열방에 흩어져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오늘도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소서.

지키시는 하나님

찬 양
말 씀
나 누 기

찬송가 382장

시편 121편 1-8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광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부족한 것들 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악한 사탄 마귀가 공격해옵니다. 이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홀로 광야를 걸으며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지시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질 문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 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힘들고 지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힘들어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가족들이 서로 자신의 경험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보세요. 혹시 없다면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격려해주세요.

암 송

신명기 23장 24절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는 담지 말 것이요

4월 17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하나님의 통치하심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90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9장

오늘의 말씀 | 왕하 9장

엘리사의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자세한 지시사항을 받게 됩니다. 그 젊은 예언자는 임무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예후가 기름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예후는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오므리 왕가를 뿌리째 뽑아내려 했고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져 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예후의 행보는 정치적 동기뿐만 아니라 종교적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1:23에서 이세벨에 대하여 말씀하신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왕하 9:1-13

세상의 역사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왕이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는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9:16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부을 것과 그 일을 엘리사를 통해 실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때문에 예후는 아합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여 이스라엘에 다시금 평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예후가 왕이 되는 것을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예후가 자신 위에 아무도 없으며 왕이 가장 높은 존재인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사명을 받은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는 일은 언제부터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 예후는 어떠한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까?

* 예후는 왕이 가장 높은 존재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예후가 다른 왕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의 관계에 대하여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2. 노회와 총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한 사명을 올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공회가 되게 하소서.
3.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겸손함으로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30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

오늘의 말씀 | 왕하 10장

열왕기하 9장에서 시작된 예후의 개혁은 10장에서도 계속됩니다. 아합의 집을 멸하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되었고 예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10장에 기록된 예후의 사역은 “바알의 집”을 파멸시킴으로 마무리됩니다. 아합의 집은 사실상 바알의 집과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바알의 집에 대한 심판은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과 다를 바 없었는데 그러한 아합의 집이 제거되면서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바알의 집은 무가치한 변소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왕하 10:18-24

이세벨은 바알의 힘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아합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물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알에게 바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세벨과 바알의 집이 파멸되어 배설물과 변소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의 풍요와 쾌락을 얻고자 이세벨과 아합과 바알의 집을 의지하며 헌신을 다했지만 백성들은 그토록 의지했던 그 장소, 자신들이 거룩하다 여겼던 그 집에서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살롬이 있으며 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인도와 언약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열왕기하 10장에서 예후가 행한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예후는 이세벨과 바알의 집을 멸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성경은 이세벨과 바알의 집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일인지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고와 헌신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2.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를 통해 이 나라의 어려움이 극복되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3. 북한 땅을 공활히 여기시며 평화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인도하소서.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게 도우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01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1-12장

오늘의 말씀 | 왕하 11-12장

북이스라엘은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지만, 남유다에는 아합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아하시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아합의 딸이자 아하시야의 어머니인 아달라는 닷치는 대로 왕족들을 죽인 후 남왕국의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유다를 통치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요아스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아달라의 왕족숙청으로 다윗의 등불이 꺼졌다고 생각했던 군인들과 신하들, 종교인들은 살아있던 다윗의 자손인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맞이했으며 6년동안 지속된 아달라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왕하 11:1-16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면 정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실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은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께 약속을 직접 받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을 담고 있고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고 있는데, ‘이 약속이 정말로 지켜질 것인가?’라는 이슈와 약속을 받은 이들의 반응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남유다에서 일어난 아달라의 반역은 무엇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포했을 때 성전에 모였던 백성들은 환호하며 어린 왕자를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아달라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 반역임을 외쳤지만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요아스는 40년동안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다윗왕조에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면 40년을 통치한 왕은 요아스가 유일한데 열왕기하 12장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요아스에게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2.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사랑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3.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대한민국과 세계열방을 위해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35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3-14장

오늘의 말씀 | 왕하 13-14장

남왕국의 요아스 왕이 즉위한지 23년 되던 해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했던 여로보암의 죄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리아에 넘기셨고 다급해진 여호아하스는 간절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에 구원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의 길로 들어섰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리아를 사용하셔서 여호아하스의 군대를 “타작 마당의 먼지”(13:7)같이 만드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엘리사의 죽음과 유다 왕 아마샤,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를 다룹니다.

묵상할 본문 | 왕하 13:14-25

엘리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막강한 시리아 군 앞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으로부터 건져냈던 한 가지는 “여호와와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제까지 버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북왕국이 망하지 않은 이유 또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버릴 수 없으셨던 것과 같이 북이스라엘 또한 버릴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한번의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족할 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덕분에 멸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떠한 하나님의 언약 덕분입니까?

*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 것을 볼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원망과 불평들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2.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고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이 자유를 얻게 하셔서 평화로운 통일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3. 한국교회와 전 세계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돌리는 일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소서.

의지할 곳 되시는 하나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10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5-16장

오늘의 말씀 | 왕하 15-16장

15장은 유다 왕 아사랴와 요담에 대한 기록 사이에 이스라엘의 다섯 왕들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주도한 반 앗수르 연합동맹을 거절한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이야기가 이어지며 아하스 왕이 연합동맹국의 침공을 받고 앗수르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앗수르의 신들을 스스로 숭배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앗수르 연합동맹의 침공을 받아 위기에 처한 아하스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대제국 앗수르를 의지했으며 종국에는 그토록 의지했던 앗수르에 의해 멸망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왕하 18:13)

묵상할 본문 | 왕하 16:1-20

본문에 그려진 아하스의 실패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하스가 긴급한 위기에 처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반면에 아하스는 정치적 동맹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도와줄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합니다. 비록 남유다가 정치적 동맹을 통해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며 아하스왕의 판단이 잠시 옳았던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토록 의지했던 앗수르의 공격을 받아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의지했던 대상이 오히려 멸망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과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곳은 거룩한 피할 곳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남유다 왕 아하스가 반앗수르 연합군에 의해 침공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 아하스 왕이 의지했던 앗수르제국은 결국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끄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교훈삼아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의 거룩한 피난처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2. 세계 열방의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소서.
3. 세계 선교의 현장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소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67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오늘의 말씀 | 왕하 17장

앗수르에 의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이스라엘의 땅이 앗수르에 의해 점령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호세아는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죽자 앗수르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앗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면서 애굽과의 동맹을 꾀합니다. 그러자 살만에셀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였고 호세아는 동맹국 애굽에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의지했던 애굽은 너무나 무기력했고 결국 앗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후로 사마리아에는 새 이주민들이 들어서고 혼합주의적인 다신종교가 그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묵상할 본문 | 왕하 17:1-23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첫째로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데에 있으며 둘째로는 우상을 만들고 신상에 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범죄함을 저지르면 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만을 따르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를 가장 우선되는 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하나님이 차선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항상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과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함께 묵상하며 생각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유일한 축복의 통로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2. 위임목사와 모든 교역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며 감당하는 사역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해주소서.
3. 국내외 선교지를 축복하사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풍성한 말씀과 선교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찬 양
말 씬
나 누 기

찬송가 369장

디모데전서 2장 1-4절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요3:16).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지도자가 나라를 잘 이끌어야 평안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 문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 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이웃에게 전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내가 품고 기도해야 할 사람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전도하고 싶은 친구나 선생님, 이웃과 직장 동료 등의 이름을 적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새롭게 세워진 내각에 누가 있는지 찾아보고 함께 가족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암송구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4월 24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95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오늘의 말씀 | 왕하 18장

히스기야는 25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고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앗수르에 의해 북 이스라엘이 무너졌지만 강대국 앗수르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후 앗수르는 남 유다를 침공했고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 공간에 있는 금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금을 받고도 앗수르의 랍사게는 유다에 쳐들어왔고 항복하라면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왕하 18:1-12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전 왕들이 없애지 못했던 산당을 없애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적당히 상황을 봐가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7절에서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북 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앗수르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질 것을 알았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의 흥망성쇠는 인간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12절에 “여호와와 말씀 듣지 않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알았던 히스기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들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히스기야는 이전의 왕들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 것을 요구하는 요즘 시대에 히스기야의 철저한 헌신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 뜻에 철저히 신속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은퇴향존 직분자들과 함께 하사 강건하게 붙드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3. 나라에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두려워 하고 정직과 성실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06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9-20장

오늘의 말씀 | 왕하 19-20

19장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옷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사야는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랍사게를 죽게할 것을 전합니다. 앗수르의 산헤립은 다시 한번 히스기야를 협박합니다. 히스기야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앗수르를 망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고 산헤립과 앗수르 군사 십팔만 오천명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20장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해 그림자가 십도 뒤로 물러가는 표징을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에게 히스기야는 창고의 모든 것을 보였고 이로 인해 쌓아둔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을 듣습니다.

묵상할 본문 | 왕하 19:1-19

랍사게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함으로 인해 옷을 찢고 굵을 베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들은 이사야는 앗수르를 두려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응답을 히스기야에게 전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일수록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해야 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15-19절에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앗수르의 왕이 여러 민족을 망하게 했지만 그들의 신은 참 신이 아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앗수르의 협박으로 인해 히스기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들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에 히스기야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 사무실 직원 분들과 함께 하사 맡겨진 일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 교회 안에 기도의 사람이 더욱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로 나아가는 교척교회가 되게 하소서

악을 행하여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90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1-22장

오늘의 말씀 | 왕하 21-22

21장에서 므낫세는 12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 55년을 다스렸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혈어 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암몬도 여호와를 버리며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22장 요시야는 8세에 왕에 올라 31년을 다스렸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여선지 홀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의 모습과 통곡함을 보시고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요시야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고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왕하 21:1-18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상을 섬길까 하여 이방인들을 내쫓게 하셨는데 므낫세는 이방인들의 가증한 모든 일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아버지 히스기야의 뒤를 잇기는 커녕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아세라 목상을 세워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습니다. 므낫세는 자신뿐만 아니라 우상으로 인해 유다를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유다에 재앙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 자녀가 제대로 신앙으로 훈련 받지 않으면 악한 길을 갈 수 있음을 므낫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 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신앙으로 지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므낫세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행한 악들은 무엇입니까?

*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므낫세가 이런 악을 저지르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악을 저지른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와 아들 므낫세의 비교를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여러 유혹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일을 선택하며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영아부와 함께 하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 신앙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부서와 세우신 교사들이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소서.
3.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열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46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오늘의 말씀 | 왕하 23

요시아왕은 백성들을 모아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자 백성들도 다 동참했습니다. 이후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했습니다. 이후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아는 계속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 모든 율법을 따라 지켰습니다. 이후 애굽 왕과 므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뒤를 이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묵상할 본문 | 왕하 23:1-23

요시아는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에 세워진 우상들을 모조리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성전 가운데 있던 남창의 집을 헐었습니다. 6절을 보면 요시아의 우상 파괴가 얼마나 철저했던지 우상을 파괴하고 불사른 것으로도 부족해 그것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요시아의 철저한 개혁을 본 백성들은 다시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각 성읍에 있는 산당 까지 다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요시아에 대해 25절에서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평가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거나 대충 넘어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고 신숙하게 순종한 사람이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아와 같은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요시아 왕은 우상과 산당들을 어떻게 제거했습니까?

* 요시아 왕의 행적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요시아 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적당히 대충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유아부와 함께 하사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자라게 하시고 섬기는 교사와 부서에 예배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소서.
3.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사 성령의 이끄심 따라 힘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더해 주소서.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10장
*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4-25장

오늘의 말씀 | 왕하 24-25

24장은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왕이 나옵니다. 이 두 왕은 앗수르 이후 신흥 강국인 바벨론과의 관계 가운데 왕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유다에 임한 것은 므낫세의 죄와 무죄한 자의 팔로 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후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25장에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와와 성전도 불탔으며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이후 유다 총독으로 그 달리야가 세워졌고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이후 여호야긴은 풀려났고 왕 앞에서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묵상할 본문 | 왕하 25:25-30

요시아 이후의 왕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해 바벨론 침공의 원인을 제공했고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시드기야 왕의 배반으로 두 번째 예루살렘 침공이 이루어져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의 주요 건물들은 불살라졌고 값진 것들은 모두 약탈당했으며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21절에서 이를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고 요약합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한 가닥의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은 유다왕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다윗의 계보인 여호야긴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죄수의 옷을 벗게 되었고 왕 앞에서 양식을 먹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지만 그러나 그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포로로 끌려가며 멸망당했지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여호야긴 왕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는 과정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 정리해봅시다.

* 계속되는 배반과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를 다윗 계보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의 회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살아감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 되게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2. 유치부와 함께 하사 부서의 모든 사역이 기쁨과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한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3. 한국 교회와 함께 하사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소서.

1. 빌립보서의 저자와 수신자

빌립보서는 편지 서두에 저자가 바울 자신이라고 밝힙니다.

바울은 주후 50년 초에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를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행16:12). 처음 회심한 사람들은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에바브로디도와 유오디아와 순두 계도 언급되어 있고 바울은 이들이 있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2. 빌립보서의 기록 시기와 장소

바울은 주후 60-62년경 로마에서 빌립보서를 썼을 것입니다. 당시의 황제는 네로였으며 바울이 이 편지를 작성할 당시 빌립보 교회는 세워진 지 10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3.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목적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선물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4:10-19).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그리고 바울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의 두 사람에게 서로 화해하기를 권면하며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며 영적으로 자라가길 권면했습니다.

4. 빌립보서의 주제

빌립보서의 주요 주제는 기쁨이며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감옥에 갇히며 핍박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음을 삶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며 이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 되고, 낮아짐 가운데 순종으로 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5. 빌립보 도시의 특징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인 필립 2세의 이름을 따라 지어진 그리스의 역사 깊은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 지역의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영토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으며 상당히 큰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금광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6. 빌립보서 개요

1) 바울의 인사말 (1:1-11)

2) 바울이 처한 상황 (1:12-26)

3) 바울의 권면 (1:27-2:18)

- A. 핍박 가운데서 굳게 서라 (1:27-30)
- B. 겸손으로 하나가 되라 (2:1-4)
- C. 그리스도의 본을 기억하라 (2:5-11)
- D.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라 (2:12-18)

4) 바울의 동역자 (2:19-30)

- A. 디모데 (2:19-24)
- B. 에바브로디도 (2:25-30)

5) 바울의 경고 (3:1-4:1)

- A. 율법주의에 대해 (3:1-16)
- B. 불법 행위에 대해 (3:17-4:1)

6) 바울의 훈계와 감사 (4:2-20)

7) 바울의 마지막 인사 (4:21-23)

7. 빌립보 교회 지역 지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20장
*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1-2장

오늘의 말씀 | 빌 1-2

1장에서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들을 위해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 대해 전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지만 한다면 자신의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모두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2장에서 바울은 다투지 말고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며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 것을 당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며 소식을 전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묵상할 본문 | 빌 1:12-18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안 형제들의 대다수가 자신들도 감옥에 갇히게 될까 두려워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극적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겁 없이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바울 한사람을 통해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도전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동안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고난이나, 형편은 상관없이 오로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증거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기뻐하며 이 기쁨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 바울은 올바른 동기든, 잘못된 동기든 자신은 상관 없이 오로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복음 증거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 나는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묵상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 전파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 유년부와 함께 하사 예배하며 섬기는 모든 자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 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지켜 주시고 힘 있게 복음이 전파되며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위로의 하나님

찬양 말씀 나누기

찬송가 380장

고린도후서 1장 3-11절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위로해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때때로 힘든 일들이 있는 이유는 이를 통해 자라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나와 비슷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히 4:15). 우리의 아픔을 내어 놓을 때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위로 받고 위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질문

우리가 받은 위로를 통해 어떻게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도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천

최근에 내 마음을 알아주거나 위로해 준 사람이 있었는지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준 적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유튜브에서 소리엘의 "위로송" 찬양을 검색해 들어보세요.

암송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래디컬북

챌프 손턴 저, 정성목 역 / 파이디온 선교회(2019)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재미있게 가르치면서도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진리를 든든히 심어줄 수는 없을까?’ 저자 손턴은 자녀 셋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혼란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영적, 지적으로 무장하게 해줄 ‘래디컬북’을 소개해드립니다.

‘래디컬(radical)’이라는 단어는 ‘급진적인, 근본적인, 철저한’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먼저 ‘뿌리로 들어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믿음의 뿌리로 깊이 들어가게 해 줄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가 왜 그것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나무가 위로 크는 만큼 밑으로 뿌리를 깊게 내려야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듯이 성경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면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도 곳곳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편에 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래디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랍니다.

9~15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아이들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어른에게도 어려운 다음과 같은 신학적인 주제를 쉽게 풀어낸 책을 만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요?
-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 분일까요?
-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물매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요?
- 우리가 만약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새우를 먹을 수 있었을까? 닭고기나 돼지고기는?
-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인 ‘엘 세덱, 엘 올람’은 어떤 의미일까요?
-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 나는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왜 교회에서는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걸까요?

● 나를 미워하는 친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래디컬북’은 한 권으로 이해하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와 다음세대 사역에 헌신한 교사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보기 드문 역작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했지만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던 신앙에 관한 지대한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고, 풍부한 이야기와 활동으로 어렵게만 느껴졌던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쉽고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인도합니다. 깊이 있는 신학적인 주제에서부터 일상에서의 고민들,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들까지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일러스트와 깔끔한 디자인은 본문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두꺼운 분량이지만 한 번에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순서대로 또는 원하는 부분을 먼저 골라서 봐도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아이들은 하나님과 스스로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답고 섬세한 존재입니다. 어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아이들이 진리에 깊게 뿌리내리도록, 하나님의 나무에 튼튼한 가지로 잘 붙어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래디컬북’을 한 권씩 놓아두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와 내용을 발견하는 놀라운 탐험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나의 매일묵상 이야기

4~6월 매일묵상으로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의
실제적인 내용을 특별 기고합니다.



• 윤 경 미 집사(은혜-33)

제목: 타이밍

| 매일묵상 21.03.12

- 21 바로의 술 말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 22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 23 술 말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창40:21~23)

내가 도와준 일을 잊어버리고 고맙다는 인사도 없는 사람에게
서운함으로 시작해서 속상함 그리고 어느새 원망~
그리고 잊어버리거나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으로 커지곤 한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남들이 듣기엔 충분히 웃고 잊어버릴 수 있는
꿈 이야기다. 요셉은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에 정확하게 행하시기 위해 준비
된 멘트들이 있었다.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나의 속상함도 서운함도 풀어주시는 주
님이 계셔서 안심이다. 내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이 진짜 억울함
이라면 푸실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어제는 누군가 나를 보는 데 조금은 불편한 눈빛으로 보는 분이 계셔서
“주님 제가 느끼는 이 불편함이 오해라면 제 마음에 담지 않도록 평
안함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다.

그러나 그때를 우리는 잘 모른다.

우리 인생의 조금함이 실수를 만들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선하게 나의 삶을 풀어내시고 실수가 없으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
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제목: 거룩한 분노

| 매일묵상 22.03.02

- 6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
- 12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 13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
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삼상11:6,12~13)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면 화가 난다.
그런 나를 보며 조금 더 참자~하고
화내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 달래곤 한다.

오늘 사울은 크게 노한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분노와 다른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 일어나는 분노였다
노를 발할 때 그것이 나의 불편함 또는 이기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 일어나는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선
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
분노도 구별해야 함을...
그리고 사울은 큰 승리를 이루었고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복수할 기회였는데
이날은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임을 고백하는 장
면을 보며 나의 모습을 본다.



일을 잘 마무리하고 나서 내가 잘나서 잘 된 것처럼 나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교만함 또는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거봐라~내가 잘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늘어놓는 나와 다른 겸손의 사울을 보게 하
신다.

“주님이 하셨어요!”라고 입버릇처럼 하는 고백!
그러나 나의 저~밑바닥 마음에 있는 교만에 진짜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을 보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입술의 고백이 아닌 진정 주님이 베푸신 구원임을 고백하는
순간순간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거룩한 분노 외에는 겸손과 사
랑으로 나아가는 하루로 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믿음으로 기다림

| 매일묵상 21.03.03

- 8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 9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오지 않는다.
초조함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위급한 상황이 오면 본성이 드러난다고 이야기들을 한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마시멜로 실험을 통해 자기절제성과 통제성을 길러준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지연의 경험을 통해 신뢰도가 쌓인다.

그 후의 마시멜로는 더 큰 기쁨의 약속이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어려울 것이다.

절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기도하면 주님은 기다리라고 응답을 주실 때가 많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온 시간들은 힘이 되어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으로, 그리고 만족스러운 지연을 통해 더욱 감사가 넘치게 된다. 그리고 멋진 타이밍을 경험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기를 원하시면 주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승리하게도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때를 알아가는 삶이 축복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순종하며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립니다.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때에 이루실 아름다운 가장 황홀한 순간에 주님의 손 잡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화상을 통한 목장 모임의 감사와 은혜

• 김 선 오 집사(기쁨-19)



코로나로 일상이 바뀌며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일상처럼 다니던 교회에서 예배마저 드릴 수 없게 되었고 다시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벽참과 기쁨도 잠시 예배 후 각자의 처소로 흩어져야 했던 교회 앞마당의 행한 모습이 너무도 생경했습니다. 성도 간 교제를 통해 서로의 삶과 음식을 나누며 위로받고 위로해 주며 기도제목을 나누던 목장 모임의 단절은 영적 소통의 단절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줌(ZOOM) 화상을 통해 목장 모임을 하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서로의 안부와 생사를 확인하고 절절한 그리움을 표현하며 낯설지만 익숙한 그 느낌을 함께 느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고 싶었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한 성도님의 배 속에 있던 아이가 어느새 세상에 나와 성장하는 과정을 화면 너머로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상을 통해서라도 얼굴을 보며 서

로의 안부와 무사함을 확인하며 한 주간의 걱정과 감사함을 나눌 수 있는 목장 모임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과의 소통의 채널이었고 혼란 속 영적 돌봄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 종식이라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과 다르게 이제는 변화된 일상을 받아들이며 부르신 그곳이 비록 컴퓨터 모니터 앞 일지라도 올 한해도 모이기에 힘써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때로는 나태해지고 쓰러지기도 했던 서로의 신앙을 이끌어 주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저희 목장 모임을 참으로 사모합니다. 끝으로 변함없는 꾸준함으로 매일목상 나눔과 화상 링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리더님 그리고 늘 미소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매일 목상을 통한 은혜

• 청년공동체 김 창 권



작년 초 어머니로부터 어와나 단체 특방에 그날의 매일목상 말씀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복사하고 올리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단체 특방에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매일목상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들지 않아 귀찮아서 중간중간 올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옆에서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검사하는 어머니 덕분에 계속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꾸준히 말씀을 올리면서 습관이 되니 묵상도 같이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목상을 하면서 평소에 자주 읽었던 말씀뿐만 아니라 잘 읽지 않았던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목상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적어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읽으니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과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 등 환상과 예언들이 적힌 말씀의 내용은 잘 이해하지 못해 읽다가 어려워져 중간에 멈추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목상에 적혀 있

는 설명을 보면서 읽으니 재미있고 끝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의 전체를 설명해주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큰 틀이 잡히는 느낌이 들어서 보다 쉽게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솔직히 모두 어른들이 시켜서 읽었기에 그저 읽는 흥내만 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은 생기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2까지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고3이 됐을 때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매일목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켜서 억지로 읽었던 말씀을 매일목상을 통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늘 시켜야만 무언가를 하던 제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선택해 말씀을 깊게 읽었습니다. 말씀의 시대적 상황과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을 느끼셨는지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이를 통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루하루 읽었습니다.

가끔은 피곤해서 대충 넘기는 날도 있었지만 말씀을 깊게 읽고 묵상하는 날들이 늘어나니 처음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위로를 얻는 경험도 하면서 삶이 행복해져 갔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물론 힘든 날도 있었지만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매일묵상을 펼치며 혹은 전에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고 다시 힘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묵상하면서 힘이 났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이었습니다. 이전에 삶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때 우연히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반드시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강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힘들 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으로 단통방에 말씀을 복사해 올리는 일을 통해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힘들어도 성경을 펼치고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차 봉사를 통해 누린 은혜

• 유 영 희 안수집사(은혜-8)

제가 차량부를 섬긴 지도 1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신자였던 저는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주차장이 앞마당과 지하 1층뿐이어서 매우 협소하여 주차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이 차를 주차한 후 자동차 키는 주차사무실에 맡기고 예배를 마치고 다시 찾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성도님의 차를 충분히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요원들이 다시 차를 몰고 골목마다 차를 세워 놓고, 키를 사무실에 두고 다시 찾아가고 했습니다. 주차요원이 거의 이삼십 명쯤 되었을 정도로 꽤 많은 인원이었는데도 거의 실 틈도 없이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야 조금 한가해지곤 해서 그 시간을 이용해 식사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무료로 국수를 제공했기 때문에 모두 함께 가서 식사하곤 했습니다. 한여름 더운 날에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비빔국수도 맡아 주시고 시원한 과일도 나누어 주시어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성전건축이 시작되자 주차공간은 더 좁아지고 주차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차량부는 더 바빠졌고, 주차로 인해 동네 주민과 마찰도 있고 민원도 들어오는 등 모든 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든 것을 감당해나가는 집사님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내을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고 지하 2층에서 4층까지 주차장이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주차장 각층에 두세 명씩 한 조가 되어 주차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늘어난 차량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통로에 2열 주차하고 밀고 당기고 그 래도 안 되면 외부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사역이었지만, 일 년에 한두 번은 아유회를



나가 힐링도 하고, 부원들과 평소에 교회에서 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차량 봉사를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됨으로 사역을 함께하면서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봉사하면서 성도님들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 그 또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아지다 보니

차들이 예전처럼 많지 않아서 편하지만, 바쁘고 힘들어도 좋으니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차량부 화이팅!



— 믿음성장 **바이블 아카데미**

1. **일시:** 2022년 4월22일(금)부터 매주 금요일 (4주간)
2. 성경읽기에서 기독교변증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상반기 바이블 아카데미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신앙적 질문들, 성경의 궁금증, 코로나로 답답했던 영적 갈증을 풀어줄 다양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3. **방식:** 유튜브 온라인 강의 듣기 및 줌(Zoom)을 통한 소그룹 모임
4. **주차별 강의내용:**
 - ① 김재광 목사 -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줌으로 함께하는 기독교 변증)
 - 1주: 신이 존재한다고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 2주: 고통의 문제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 3주: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 4주: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 ② 권영준 목사 - 신(信) 어게인(교회생활)
 - 1주: Reset 다시 믿음의 기초를 세우라!
 - 2주: Re-Bible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 3주: Revival 다시 부흥을 갈망하라!
 - 4주: Restart 다시 시작하라!
 - ③ 이민우 목사 - 레위기: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성경강좌)
 - 1주: 레위기 개요 및 번제(헌신의 의미를 다지다)
 - 2주: 소제(감사를 올려드리다)
 - 3주: 화목제(화평을 누리게 하다)
 - 4주: 속죄제, 속건제(용서를 경험케 하다)
 - ④ 장기훈 목사 - 고린도전서: 십자가의 도(줌으로 함께하는 성경읽기)
 - 1주: 성경을 바르게 읽는 4가지 기동
 - 2주: 고린도교회의 3가지 문제점과 해결책
 - 3주: 고린도교회의 7가지 질문과 답변
 - 4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라

※ ①번과 ④번은 실시간 줌(Zoom)으로 진행됩니다.

“몽골”

• 정홍재, 박선주 선교사 (파송 선교사, 마라나타 교회/공간나비/어린이도서관/UBMK)

센베츠카노?(안녕들 하십니까?) 몽골에서 사역하는 정홍재, 박선주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고척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고척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참된 부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헤밍웨이 작가는 인생을 6개의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아기 신발을 판매합니다)” 어떤 부부가 곧 태어날 아기에게 신겨주려고 계획했는데 출산 중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아기 신발을 다시 팔겠다고 내놓은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16장 9절)

저희 부부는 12월 29일 아시아나 비행기로 한국에서 안식월을 보내기 위해 입국했습니다. 10일 동안 격리를 대구에서 마치고, 마지막 PCR 검사를 했는

데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다시 열흘 동안 격리를 했습니다. 그 뒤 서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서울로 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풍전등화여서 혹시나 입국택 선교사 가정이 급하게 귀국할 것을 대비하여 고척교회 게스트룸을 양보하였습니다. 다행히 청운교회 파송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청운교회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월 10일 잠자리에 들었는데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무래도 밤새 고통을 참는 것보다 가까운 병원을 가야 할 것 같다”는 말에 숙소에서 500미터 떨어진 강남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아픈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보시더니 간과 쓸개 있는 쪽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CT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CT 촬영 결과 쓸개관이 부어있었고, 간에서 배출되는 액이 쓸개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되고 있었습니다. 간에 찬 액을 호스로 빼내고, 쓸개관 확장 시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께서는 쓸개에 돌이 많이 차서 관 확장

을 하더라도 다시 관이 막힐 것 같으며 쓸개를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쓸개 절제 수술을 위해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의 모든 일정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2009년 위암 판정을 받고 위전절제술을 받았기에 개복을 또 하게 되면 장 유착이 일어날 수 있어서 복강경으로 수술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살아났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앞으로 위와 쓸개까지 제거하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파도처럼 내 마음에 몰려왔습니다. 아내 박선주선교사는 여러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제목을 카톡으로 나누었습니다. 위암목사님께서도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전화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리는 중보 기도가 나의 마음에 큰 평안과 위로를 가졌다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

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호흡에 맞추어 하나님께 올려 드



렸는데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2달 전 몽골에서 이 고통이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며 고척교회 선교관을 양보했던 것이 청운교회로 이끌어 주시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청운교회 선교관 500미터 거리에는 강남세브란스 병원이 있었고, 한국의 발전된 의술을 가진 선생님을 통해 개복하지 않고 복강경으로 수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고척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더욱 큰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내가 연약한 그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그러므

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고린도후서 12장 9~10절)

병수발을 들다 지쳐 좁은 보호자 침대에서 잠든 아내를 보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몽골선교사 자녀학교 건축과 학생들을 교육하며 많이 지친 아내에게 안식년에는 푹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부실하여 고생을 시키는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마음은 고맙고 존경합니다. 올해는 교장 선생님도 공석 상태 시고, 선생님들 절반 이상이 나가시고, 새로운 선생님들로 교체되는 시기라 박선주선교사는 안식년을 5개월 반납하고 2022년 3월 2일 몽골로 다시 입국했습니다. 저도 몸이 회복되는 대로 다시 몽골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학기가 마치는 7월에 다시 한국에 나와서 안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병실체험은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병실에 계셨던 할아버지는 폐암이 골수로 전이되어 하루아침에 목 아래 모든 신경이 마비되신 상태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솔로몬 왕이 말한 것처럼 너무나 허무하고 연약하고 외로운 존재입니다.

죽음이라는 관문,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오늘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늘을 향해 노란 꽃 빛으로 영광을 돌렸던 그 몽골 풀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6-8절)



교회소식

4월

교회

- 월삭새벽기도회 | 1일(화)
- 희망의 복지재단 헌신예배 | 3일(주일)
- 종려주일, 상반기 세례입교식 | 10일(주일)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 11-16일(월-토)
- 세족목요일 성찬예배 | 14일(목)
- 부활절 | 17일(주일)
- 이단대응세미나 | 24일(주일)
- 5060하프타임(4주) | 26일(화) 개강

교회학교

예배시간 안내

GO CHEOK, PRESBYTERIAN 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9:00	은혜대예배당
	3부	오전 11:00	은혜대예배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은혜대예배당
수요기도회	1부	오전 10: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후 7:30	은혜대예배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6:00	은혜대예배당
금요성령집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L-12 리더모임	수요일	오전 11:00	교구별 장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M-12 리더모임	수요일	오후 8:40	세미나실(본관5층)
상담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e-메일 상담으로 운영합니다. gocheok1004@gmail.com 로 메일 보내주세요.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1층
유아 1, 2부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1층
유치 1, 2부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5층
유년 1, 2부(초1-3학년)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지층
소년 1, 2부(초4-6학년)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4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꿈터 채플(본관B1층)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문화공간 채움(본관1층)
청년공동체	주일 오후	1:00	은혜대예배당
은빛시니어학교	목요일 오전	10:30	꿈터 채플(본관B1층)

* 모든 예배는 [고척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위드유' 가정예배 세우기 프로젝트

- 가정예배를 세우기 위해 격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가정예배 실천표'를 체크하신 후 절취하여 수거함에 제출해 주세요.
(가족 구성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매달 첫째 주일에 추천하여 3가정에 [사랑나눔 간식 쿠폰]을 드립니다.

4월 가정예배 실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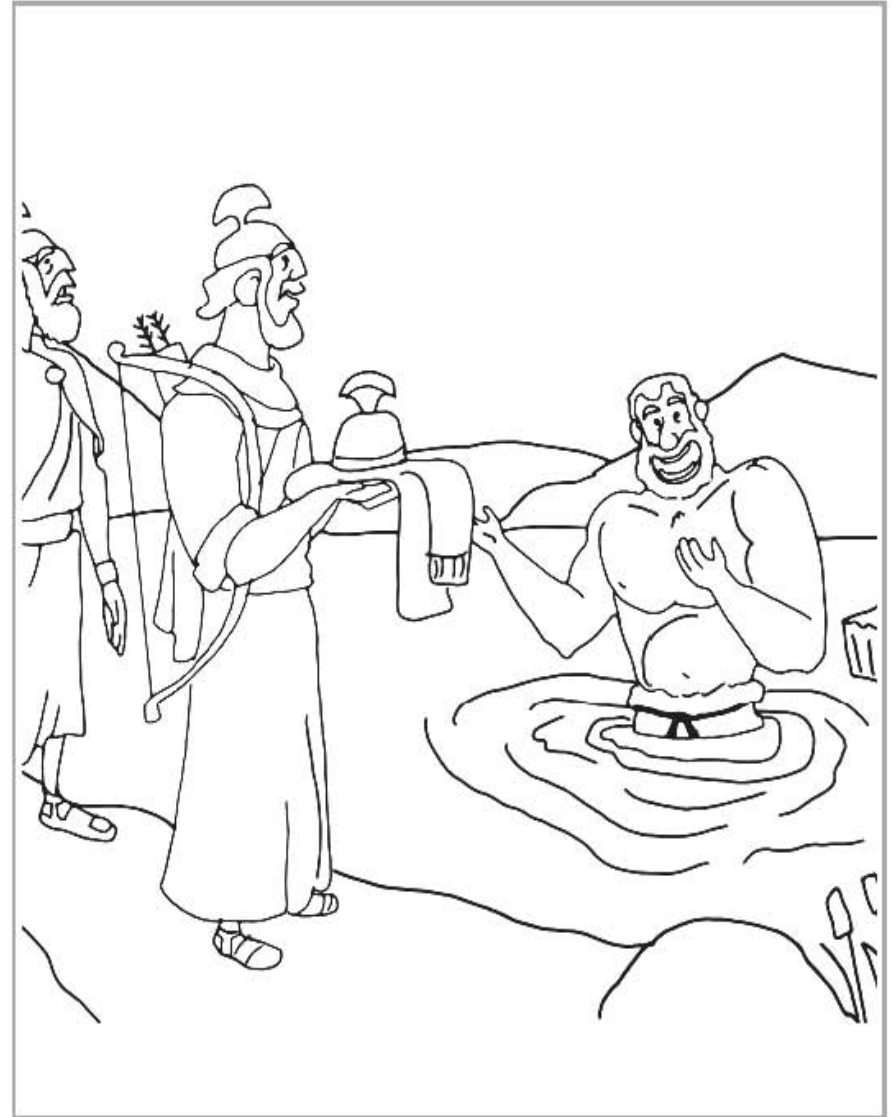
이 름	
소 속 (교구-목장/부서)	

주 간	실 천 (0로 표시)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셋째 주간	
넷째 주간	

[짧은 간증과 소감]

나아만이 나왔어요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읽고, 그림을 색칠하면서 나아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고인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시영기 23장 24절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면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베블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들에게는 답지 말 것임

누가복음 6장 10절

무리를 돌려보내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도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여 그 손이 회복되니라

